

이항 <고인도 날 못 보고> 완벽 마스터 시크릿 노트

교과서 · 유인물 · 판서 전수 집약 및 수능/내신 백점 방어용 심화 분석

1. 작품 핵심 개관

갈래	평시조, 연시조, 사대부 시조	성격	의지적, 교훈적, 도학적 (성리학적 수양)
제재	고인(古人)이 가던 길 (★ 학문과 진리의 길)		
주제	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 (학문 수양에 대한 끊임없는 정진)		
핵심 특징	- 성현들이 깨닫고자 했던 추상적인 '도(道)'를 고인이 걷던 '길'로 비유적(시각적·구체적 형상화)으로 표현함. - 연쇄법과 설의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실천적 의지를 집약함. 3장 6구 4음보의 전통적 정형시조 율격을 충실히 계승함.		

2. 본문 해독 및 핵심 시어·시구 완벽 분석

[초장] 고인(古人)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

☞ 옛 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, 나 또한 옛 성현을 뵈지 못하네. (시간적 단절과 거리감)

[중장] 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 앞에 있네

☞ 옛 성현을 뵈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행하던 길(학문의 길)이 내 앞에 놓여 있네. (시공간 초월적 매개체)

[종장]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녀고 어쩔고

☞ 그분들이 걷던 학문과 수양의 길이 눈앞에 있으니, 내가 행하지(따르지) 않고 어찌하겠는가? (실천적 의지)

💡 출제 핵심 시어 돋보기

- 고인(古人):** 단순한 옛사람이 아닌 공자, 맹자, 주자와 같은 **옛 성현(학문과 인격의 완성자)**을 지칭함.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신적 멘토.
- 녀던 길:** '다니던 길', '행하던 길'이라는 뜻으로, 성현들이 평생 동안 닦아놓은 **성리학적 도(道) 및 학문과 자기 수양의 과정**을 비유함.
- 아니 녀고 어쩔고:** '따르지 않고 어찌하겠는가(반드시 따르겠다)'라는 의미로, 성현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**실천적 다짐과 당위성**을 표출함.

3. 시험 적중 1순위 표현 기법 분석

① 연쇄법 (최다 출제 포인트)

- 초장의 끝구인 '나도 고인 못 봐'를 중장의 첫구인 '고인을 못 봐도'로 연결하고, 중장의 끝구인 '녀던 길 앞에 있네'를 중장의 첫구인 '녀던 길 앞에 있거든'으로 이어받음.
- **효과:** 형태적 결속력과 시상 전개에 긴장감을 부여하며, 성현의 뜻을 기필코 따르겠다는 의지를 **점층적으로 심화**함.

② 설의법

- 중장의 '아니 녀고 어쩔고'는 표면상 의문문이나 실제로는 '반드시 행하겠다'는 확정적 평서문을 강조하는 표현임.
- **효과:** 화자의 내면적 확신과 끊임없는 정진에 대한 당위성을 강력하게 전달함.

③ 대구법

- 초장의 '고인도 날 못 보고'와 '나도 고인 못 봐'가 문장 구조적 대칭을 이룸.

4. 고득점 심화 가이드 (내신/수능 킬러문항 방어)

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(시각적 형상화)

'성리학적 도(道)'나 '학문 탐구'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**추상적 개념**을 발로 직접 걸어가며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 '**길(녀던 길)**'이라는 **구체적인 사물로 치환**하여 시각적으로 형상화함. (서술형 단골 요건)

■ 〈도산십이곡〉 전체 유기적 구조 분석

이 작품은 퇴계 이황이 지은 총 12곡의 연시조 중 **제9곡(언학 제3곡)**에 해당함.

- **전 6곡 [언지(言志)]:**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그 안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노래함 (자연 친화적 태도).
- **후 6곡 [언학(言學)]:** 학문 정진과 성정 수양의 의지를 노래함 (**★본 작품이 속한 영역**).
- ※ **합정 방어 전략:** 보기 지문으로 전 6곡 중 하나를 제시하고 공통점/차이점을 물을 때, 본 작품은 자연 예찬이 아니라 '**학문 수양에 대한 실천적 의지**'가 주된 핵심임을 파악하여 혼동하지 말 것!

 완벽 복습을 위한 교과서 확인 문제 및 정답

1. 이 작품이 수록된 〈도산십이곡〉 중 학문과 수양을 통해 바른 성정을 기르려는 뜻을 담은 후 6곡의 평시조를 모아 하나로 엮은 시조 형식을 무엇이라 하는가?

[정답] 연시조

2. 초장의 '고인(古人)'이 함축하고 있는 구체적 대상들을 서술하시오.

[정답] 공자, 맹자, 주자와 같은 옛 성현

3. 종장의 '녀던 길'의 원초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각각 쓰시오.

[정답] 원초적: 다니던(걸어가던) 길 / 함축적: 옛 성현들이 정진했던 학문과 도(道)의 삶

4. 종장의 '아니 녀고 어쩔고'에 담긴 화자의 지배적인 태도를 쓰시오.

[정답] 의지적, 실천적 태도